

뉴스 & 뉴스

아나올 장애아동 환경캠프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는 서울 구로구립 ‘아나올 장애아 어린이 집’과 함께 17일부터 18일까지 산을 자연휴양림 내 청소년 수련장에서 총 17명의 장애 아동들이 참가하는 ‘장애아동 환경캠프’를 진행했다.

환경교육센터에서 실시한 ‘술 체험’ 등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미취학 장애아동에게 오감을 통해 감각적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감각적, 지각적, 학습적, 인지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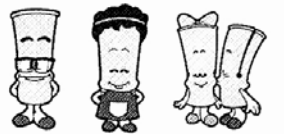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자원봉사팀장 전산교육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정대)은 22일부터 9월 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5차례에 걸쳐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전산교육실에서 조계종 자원봉사팀장 40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자원봉사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인터넷과 통신을 통해 재단과 자원봉사자들간에 상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02)723-5101

한영우 기자

진각종 죽비캐릭터 ‘깨침이’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을 상징하는 죽비캐릭터의 공식명칭(기본형)으로 ‘깨침이’가 결정됐다.

진각종은 11일 통리원 회의실에서 신교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작품 1백여 건에 대해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깨침이’를 공식명칭으로 선정했다. 또 가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만다라 패밀리’를 선정하고 이들은 ‘각이’, 딸은 ‘진이’로 죽비캐릭터 가족구성원의 이름을 최종 확정했다. 아빠와 엄마를 형상화한 명칭은 당선작이 나오지 않아 이날 선정되지 않았다.

죽비캐릭터 공식명칭으로 결정된 ‘깨침이’는 ‘누구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 만다라 세계를 만들어 가기를 서원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새시대불교포럼 8월 포럼

새시대불교포럼(대표 박승원·김현규)은 29일 오후 6시30분 서울 종단협 강당에서 8월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형중 박사가 ‘휴정 선사 연구’, 최기표 박사가 ‘천태 점차지관(漸次止觀)의 수행체계 연구’를 각각 발표한다. 또 노귀남 실행위원장은 ‘2000년 7월 조-중 접경 지역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02) 725-4282 김재경 기자

150 사찰서 17000명 단기출가

여름수련회 결산

사찰의 ‘단기출가’ 수련회가 대중적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전국 150여 사찰에서 수련회를 개설, 1만 7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수련회는 선무도, 효, 위빠사나, 심상훈련 등 특정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눈에 띄고, 이러한 수련회에 정원의 2배에서 6배에 이르는 참가자들이 몰리는 특징도 보였다.

또한 예년에는 몇몇 곳만이 수련회 경험 유무에 따라 프로그램을 달리했었다면 올해는 대부분이 조계종 교구본사가 참가자의 근기와 능력에 맞게 수련회 차수를 구분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 여름 수련회에서는 사찰수련회를 청소년들의 대안학교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보였다. 청소년 전문 수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화성 신흥사는 올해 특별한 그룹의 수련생들을 받았다. 수원 한일전산학교 학교장과 교사가 인솔한 63명의 간부 학생 전원이 수련회에 참여한 것. 신홍사의 경우 학생들의 심신수련의

효·위빠사나 등 테마별 전문화 청소년 대안교육의 장 역할도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문의와 방문이 꾸준히 늘고 있다. 경주 골굴사는 학교와 학부모들이 매일 수십명의 ‘문제아’들을 데리고 와 말하고 갈 만큼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대안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 했다.

골굴사는 7~8월 두달동안 6천여 명에 달하는 수련생들이 몰려 주위를 놀라게 했다.

해남 대흥사는 벌써 내년 수련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말사에서 수련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수련회 시



단기출가 수련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사진은 천축사 시민선방에서 좌선수련을 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모습.

종교지도자 회담에 달라이라마 왜 빠나 티베트인들 UN에 항의

국제연합(UN)이 28부터 31일까지 여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레니움 세계 평화 회담’에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UN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압력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되자, 티베트인권독립회의(Stream Of Free Tibet, http://tibet.or.kr)가 UN에 항의 편지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국제적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1000 여명이 넘는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됐다.

티베트인권독립회의는 ‘티베트인들이 직면해 있는 민족 말살의 상황을 무시하고 있는 UN의 태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현재 티베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악한 인권 유린과 종교적 억압을 조사하기 위한 UN의 조사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범사연합회는 18일 ‘중국정부의 티베트 불교 말살 중지와 티베트인의 자유로운 불교활동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재경 기자

불자 장기기증신청 늘고있다

‘생명나눔 캠페인’ 동참 작년보다 3배 증가

지난 2월 장기기증에 관한 법이 발효되면서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크게 감소한 반면 불교계의 장기기증신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가 올해부터 전개한 ‘전국민 1인 1장기기증운동’ 캠페인 100회를 마치고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등록된 장기기증신청 건수는 3,818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2,992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뇌사자 장기기증이 올해 7월까지 1,332건으로 99

년 996건과 비교할 때 같은 기간 동안 3배 이상 늘었으며, 98년 485건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했다. 또 각각기증도 1,308건으로 99년 991건, 98년 487건에 비해 현저하게 늘어났으며, 신장기증 796건, 생전시 신장기증 144건, 생전시 골수기증 238건 등 다른 분야도 예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배 가량 늘어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뇌사자 장기기증 건수가 지난해 165건에서 올해 32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회 박원순 사무처

장은 ‘뇌사자의 장기기증과 뇌사 시 장기기증이 같을 수는 없지만 불교계의 장기기증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됐기 때문’이라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 신청이 뇌사자 장기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산청군 잇단 훼손 개신교인 범행 자백

경남 산청군내 사찰 3곳에서 불상을 훼손한 범인 3명이 산청경찰서로 자진출두해 범행을 자백했다. 산청경찰서는 14일 미리 검거된 교회 신자 양모씨 등 4명의 진술서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형사입건 했다.

이들 교회 신도 4명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청천암, 천문암, 지장암의 불상을 잇달아 훼손했다. (본지 282호 23면 기사 참조) 김재경 기자

고침 282호 23면 미사산 탐사 기사와 관련 제목에서 전북도가 경목도로 잘못 표기했기에 바로 잡습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천주교중앙협 체육대회

25일 독심체육공원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중무원들과 천주교 중앙협의회 직원들이 종교간의 연대와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연다.

조계종 기획실은 14일 “두 단체간의 체육대회를 25일 독심 체육공원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히고 “양쪽에서 80명씩 160여명이 참

석하며, 스님들과 신부, 수녀들도 함께 경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천주교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김중수신부가 개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다. 총무원은 이번 체육대회에 격려금을 전달해 관심을 나타냈다.

연꽃마을 부설 의원 이용 노인들 ‘한숨’

“무료진료·처방 받았는데 이젠 약 사먹어야 한다니”

17일 오후 서울 마포에 소재한 연꽃마을 부설 마포경로의의원을 찾았다. 게다가 병원문을 나서 약국을 다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불만거리다. 그나마 처방전대로 약을 구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기저기 약국을 돌아다니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의약분업 시행은 이들 의원들을 운영해 온 연꽃마을에도 큰 고민을 안겼다. 당초 어려운 형편의 노인들을 돕자는 뜻에서 시작했지만 약값을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3개 의원 중 하루 평균 내원자가 3600여 명에서 700여명이나 줄었다. 진료와 약처방을 무료로 받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오던 노인들이 발길을 끊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각 의원들이나 의원 운영주체인 연꽃마을 역시 그럴 수 없는 처지다. 더욱이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진료비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장애인과 1종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약을 처방해도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있기 하지만 약에 대한 보험청구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의원에서 약값을 지원할 수도 없는 처지다.

연꽃마을 김종필 주임은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질의를 해보았지만 현재로서는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별다른 대책은 없다”며 “교계에서 갖가지 후원을 통해 약값을 지원해주는 방법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nia.com)



서울 마포경로의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 약국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약값에 대한 부담으로 개운치 않은 표정이 역력하다.

CD 하락이수

인생을 즐기롭게 삶을 복되게...

占이면 점! 運命이면 운명!

대유학당의 [씨디 하락이수]와 함께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3000년을 이어온 周易의 신비를 한 장의 CD에 담았습니다. 운명을 즐기롭게 개척하는 지혜의 보고 [CD河洛理數]

태어나면서 부여된 우주의 기운 진희이 소강절 두분 선생의 비법

→ 생년월일시를 컴퓨터에 입력

→ 평생의 운부터 그날, 그날의 운까지 자세히

→ 뿐만 아니라, 점수화! 문자화! 도표화!

→ 64괘 384호 중 한가지 운×12가지 조건

컴퓨터 주역점, 비법 중의 비법 참평비결, 12조건을 활용한 상대방파의 공합, 적성!! 나쁜 환경은 개선하거나 피해나가고 좋은 환경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CD에는 주역의 예지력을 담고, 그 CD에 대유학당의 명예를 걸었습니다.

주역의 명문! 대유학당 02) 2232-8383, 2234-1786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5. 조상대, 친족, 연족, 일체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6.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9.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내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0.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 내용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장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괘의 상경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장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맥장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10.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신비
11.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12. 이경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 334-9490, 334-9491
야간 : (031) 706-3060